

北 6자회담 복귀 전격 합의 배경

‘위협’ 몸값 올린후 ‘외교’ 선회

북한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합의함에 따라 금융제재 이후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렸던 한반도 위기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동안 위기지수를 높여온 만큼 이제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胡锦涛) 국가주석의 특사자격으로 방북한 당사(唐斯) 국무위원과 만나 추가 핵심협 계획이 없음을 밝히면서 6자회담 복귀 의지를 과감한 것으로 북한이 외교적으로 가도를 잡았기 때문이었다는 분석이다.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면서도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답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는 유보적인 자세를 취한 것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해된다.

정부 당국자는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몸값을 한껏 올린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교를 통한 협상과 거래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외무성 등 북한의 협상파트너가 전면에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핵실험이라는 비방글에 올라선 상황에서 추가적인 카드가 없다는 것도 북한으로서는 위협보다는 외교를 선택한 이유로 파악된다.

핵실험과 미사일까지 발사한 상황에서 ‘제재시 추가적 대응조치’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추가적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놀라게 하기에는 파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핵실험 이후 미국과 일본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고 남한을 비롯해 대만과 태국 등 회원국들이 앞다투어 결의안 이행을 발표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위기 의식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홍콩에서 북한 상선들에 대한 억류와 검문검색이 강화되고 미국 등



지난달 31일 베이징 3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 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왼쪽부터>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6자회담에서 이들 3명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추가 카드 부재, 국제사회 압박 고조 美 ‘힐-김계관 회동’ 복귀 명분 제공

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추적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의 대외거래가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에서 가뜰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이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의 경제를 떠받쳐온 중국의 기업들과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앞다투어 재검토하고 있는 것도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이후에 닥칠 외화고갈과 인플레이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껏 위기지수를 높인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 되는 국면에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라는 외교적 수단을 선택한데는 역시 미국의 태도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핵문제를 북미 양자문제로 평가하고 있는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과의 양자회담에 목을 매 왔고 이번에도 미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베이징에 비밀리에 보내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게 함으로써 북한이 회담 복귀를 결정할 명분을 쥐어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작년 7월 제4차 6자회담을 재개할 때도 힐-김계관 라인은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졌고 이것이 북한의 회담 복귀의 명분을 제공했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그동안 힐 차관보의 방북을 요구해 왔던 것 등은 미국에 대해 명분을 달라는 요구”라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제재 때문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태도변화 때문에 회담에 복귀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북한의 양자회담 요구를 외면하던 미국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북한과 만난 것은 중국의 중재 속에 3자회담이라는 모양새를 갖추기는 했지만 내달 7일로 예정된 중간선거 등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금융제재 문제가 6자회담 진전의 변수가 되겠지만 미국도 6자회담 틀에서 양자회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의 회담은 핵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과 금융제재를 협의하는 북미양자회담의 두 트랙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中 외교부성명 전문

▲10월 31일 중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 중국, 북한, 미국의 6자회담 대표가 참석한 비공식 협의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됐다.

▲3개국, 6자회담을 다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도 깊은 의견 교환을 했다.

▲3개국은, 6개국이 형편이 좋은 가까운 시기에 6자회담을 개최한다는데 합의했다.

정부 환영 성명

정부는 지난달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북.중 3자회담을 계기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정부는 이번 합의대로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되어 9.19 공동성명 이행방향이 합의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앞으로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환영

미 백악관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환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31일 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든 존드로 대변인은 “우리는 (북기) 발표를 환영하고 곧 회담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빅뱅 시작-盧대통령의 선택은?



정계개편을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간 갈등기류가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면돌파 카드로 “우리당 사수”

“작은 피로 이길수 없다” 차기대권 영향력 시사 측근 정무특보 배치 “원칙대로 밀고 나가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가.’

10·25 재보궐 선거 이후 정계개편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면서 ‘노심’(盧心)의 향배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당 내에 절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노 대통령과 정치적 명운을 같이 할 친노(親盧)세력은 여당 내에서도 이제 소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누가 뭐래도 노 대통령의 당이다. 그런 점에서 노 대통령의 거취는 정계개편 과정에서 절대 상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일단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사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0·25 재보궐 선거 직후 가까운 의원을 청와대로 불러 “작은 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 1천만명을 어떻게 작은 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을 지키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또한, 지난 5.31 지방선거 직전 ‘범여권 통합파’의 대

표주자인 엄동연 의원을 불러 “민주당과의 통합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당내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민주당과의 통합론, 이른바 통합신당론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이뤄지고 있는 정계개편 움직임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혀지고 있다. 국민에게 국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적 좌표나 시대정신을 담지 않고 단순한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로 한 정당 간의 이합집산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노 대통령은 최근 이해찬 전 총리, 오영교 전 행자부장관,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정무특보로 내정하는 강수를 쳤다.

이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고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을 진두 지휘한 여권 실세다. 여기에 이강철, 문재인 전 수석은

현 정권의 중심축인 영남지역 민주화세력의 양대 지주도 통한다. 이런 점에서 노 대통령이 정무특보단을 통해 당 장악력을 높이고 여권의 정계개편이나 차기 대선 후보 선출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지역주의 극복 및 정치개혁이라는 자신의 철학과 노선을 담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사수에 끝까지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계개편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민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노 대통령의 정치 일선 후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노 대통령이 정치 일선 후퇴나 열린우리당 ‘탈당’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 정계개편의 흐름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사수는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집권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결국 노 대통령이 탈당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노 대통령이 특유의 정면돌파로 마이웨이를 선언할 것인지, 정치 일선 후퇴로 정계개편의 활로를 열어줄 것인지 정치권의 관심은 노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쏠려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최수민 김동원